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 입찰 기회 늘어

2.1억 미만 입찰 실적제한 폐지...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낙찰제로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입찰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시 금액인 2억1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 제한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됐다.

반면 최저입금 지급을 어진 업체는 공공조달 입찰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확대 경장)'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확대 경장은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회의체로, 지난달 2일 송실대에서 열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공공조달제도 혁신방안은 1차대 내용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연간 117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 시장이 3년간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되레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재정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된 탓에 사회적 가치와 공정 조달을 실현

하려는 유인도 부족했다.

세부 방안을 보면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조달시장 개방대상 금액인 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을 없애고, 물품 구매 입찰에서 적용하던 '최저가 낙찰제'를 '적격심사 낙찰제'로 바꾼다.

이는 창업·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활성화하되, 과다 출혈경쟁을 막고 적절한 납품 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후 22년 만에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영세업체의 입찰 참여 비용과 절차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제안서 제출과 실적 발급 등의 온라인 처리도 의무화한다.

창업·벤처기업의 초기시장 확보도 지원한다. 국가·공공기관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제품을 집중구매하는 '집중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의무율을 현행 50%에서 7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1억원 미만 물품·용역에 대한 창업·벤처기업 간 제한경쟁도 허용한다.

기성제품 공급 중심으로 운영되던 현행 공공조달에서 벗어나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제품 개발 및 구매

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 방식의 입찰제도도 도입한다. 발주기관이 조달 목적과 주요 기능만 제시하면 민간업체가 구현 방법을 제안하게 되며, 우수한 제안을 한 업체가 최종 낙찰되는 방식이다.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우수 연구개발(R&D) 결과물에 대해 모든 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부 R&D사업에 한해 사전구매를 약정한 수요기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다.

반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공조달 심사는 강화한다. 모성보호와 적정임금 지급 등을 조달기업 평가에 반영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적격심사에서 사회적가치를 타진도 항목과 분리심사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입찰시 가산점을 주고,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면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노무용역근로자가 2차년도 이후에도 적정 임금을 지급 받도록 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의무화하고, 시중노임단가 상승엔 계약금액도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입금하고 발주기관이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도 시행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현행 7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납품 지연 때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지체상금의 비율을 연 20~30%로 낮춘다. 현재 계약 금액 대비 지체상금은 공사 36.5%, 물품 54.8%이다.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대비 91.3%에 달한다.

객관적인 원가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용역의 전문가 범위를 확충하고, 계약상대자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제도와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고정민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은 "공공조달 혁신방안 시행으로 창업·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강화와 기술 기업에 대한 신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의 토대가 공고해질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근로환경 개선 등 사회적 가치가 확산하고, 발주·하도급자 간 상생 기반 구축과 공정경제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쉐보레 말리부, 연말 판매 촉진 '총공세'

쉐보레(Chevrolet)가 중형 세단 가솔린 모델 판매 1위 말리부를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연말 판매 촉진 총공세에 나선다.

지난 8일부터 2주간 주말에 걸쳐(12월 8~10일, 15~17일) 열리는 일산 '킨텍스 크리스마스 페어(Kintex Christmas Fair)'에는 말리부를 비롯한 쉐보레 주력 제품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전시되며 고객 참여 SNS 이벤트가 개최된다.

SNS 이벤트 행운의 당첨자 1명에게는 말리부가 경품으로 증정되며, 전시장에서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참가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스피커 1대가 제공된다.

더불어, 홈페이지를 통해 말리부의 견적상담을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경품 이벤트가 마련된다.

연말까지 쉐보레 공식 홈페이지(<http://www.chevrolet.co.kr>)를 통해 참가하면 추첨으로 총 521명의 고객에게



시그니얼 서울과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숙박권, 에비앙 스파 이용권, 아이폰X, 말리부 시승 쿠폰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한국지엠 마케팅본부 이일섭 전무는 "각종 행사가 많은 연말을 맞아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막바지 판매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쉐보레는 고객 참여를 통해 제품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2억원 이상 세금 내지 않은 2만1403명

국세청은 11일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공개인원이 작년보다 4748명 늘어났다.

이번에 공개된 2만1403명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명이었다. 총 체납액은 11조34697억원으로 전년(13조3018억원)보다 8321억원 감소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인 인원이 1만6931명으로 전체의 79.2%, 체납액은 6조7977억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건설업체 코메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528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유명인 중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양도소득세 369억원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도 증여세 239억원을 체납했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9억7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유병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 유상나, 유혁기, 유섭나 씨도 증여세 115억 4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연예인 중에는 구창모 씨가 양도소득세 3억

8700만원을, 탤런트 김혜선씨는 종합소득세 4억7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통해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575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고액체납자 중에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거나 타인 명의 사업장에 고미술품을 숨기는 사례가 있었다.

재산의 해외 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9160건의 출국금지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139명을 행사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과장은 "앞으로도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가짜 금융회사 앱 설치하지 마세요"

금감원 "출처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등 즉시 삭제"

최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가짜 금융회사 앱(App)을 설치하게 한 후 돈을 가로채는 대졸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졸사기 신고건수는 총 153건이었다.

지난 7월 32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는 8월 79건, 9월 63건, 10월 5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사기범들은 주로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통화 중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발송해 가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앱 설치 후 피해자가 금

감원이나 금융회사 전화번호로 확인전화를 걸면 이미 악성코드 감염으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연결됐다.

이들은 대졸사자가 진행 중인 것처럼 안내했고 이후 기존 대출금 상환, 공탁금, 법사사 비용, 보증보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가로챘다. 가짜 앱의 상담신청 화면을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직장 등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출처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등은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고, 알 수 없는 소스를 통한 앱 설치는 허용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식품업계, 안전성 논란 속 '안심밥상' 강조

최근 햄버거병, 살충제 계란 등 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품 선택시 맛 외에도 원료의 원산지나 생산과정 등을 꼼꼼히 따져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는 믿을 수 있는 원료나 생산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선보이면서 '안심밥상'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원산지와 생산과정을 공개한 아기 이유식부터 매일 새 기름으로 만드는 어묵 등을 선보이는 추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업업의 이유식 전문 브랜드 맘마밀은 '맘마밀 안심이유식'에 '맘마밀 안심정보공개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유식은 생후 6개월부터 시작해 아기의 식습관과 성장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아기가들이 선택할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패키지에 삽입된 QR코드

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고 제품의 유통기한을 선택하면 이유식 쌀의 도정일, 생산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원재료, 제조공정 등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신뢰도를 높였다.

깔끔한 포장과 원료의 우수성을 내세운 반찬 제품들도 눈에 띈다. 동원F&B의 '동원 바른어묵'은 어묵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매일 깨끗한 새 기름으로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는 제품이다. 고온에서 짧은 시간에 튀겨내 신선하고 일 반적으로 사용하는 대두유가 아닌 카놀리유로 만들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울가홀푸드의 '울가순(純)'은 국산 무항생제 돼지고기 안심 원료를 사용하고 염도는 낮은 프리미엄 캔햄이다. 천연염과 국산 채소를 넣고 일 반 캔햄 대비 나트륨 함량을 10~15% 낮추어 짜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발색제와 항미증진제도 넣지 않았다.

/뉴시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선북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